

문학번역 비평을 위한 인지시학 모형*

한 미 애
(동국대)

1. 서론

문학번역 비평은 문학번역 텍스트를 “해석(interpretation)하고 평가(evaluation)하는 활동”(Holms 2000: 182)이다. ‘해석’은 문학 텍스트의 함축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원본과 번역본의 차이를 드러내며, 번역본이 여러 종류 있을 경우 번역본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석과 더불어 “진정한 비평이 되려면 분석은 반드시 평가로 이어져야”(Berman 1995: 74)하는데, 여기서 ‘평가’는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를 말한다. 문학적 특성은 수량으로 나타내기 어려우므로 문학 작품으로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다.

번역의 평가 기준은 오래 전부터 충실성과 가독성이 지배적이었다. 이 두 잣대는 영미고전문학 번역평가사업(2002-2006)의 평가 기준이기도 했는데, 이는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5612).

본격적인 비평을 하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요건”(김영희 2008: 54)이었다. 평가사업단의 “주된 관심은 본격적인 번역 비평이라기보다는 그 비평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번역본들을 걸러내는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평가’”였기 때문이었다(영미문학연구회 2007: 6). 충실성과 가독성이라는 두 기준점은 문학번역 텍스트를 비평할 때에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필요가 있다.

문학번역 비평은 단어나 문장 차원의 충실성과 가독성을 넘어서 문학 텍스트를 문학답게 하는 특성, 즉 문학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번역학자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한다. “문학 텍스트가 문학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바로 문체”(Boase-Beier 2006: 114)이기에 문학번역 비평은 곧 문체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평가하고 해석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의 해석은 주관적인 성격을 띠고 그에 따라 평가도 주관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지만 “비평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비평은 그 주관적 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되...그것[비평]을 타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일정한 논리적 설득력, 즉 보편성(객관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김광길, 심원섭 1997: 17). 비평의 객관성이란 비평가가 선택한 모형이나 비평 이론을 작품에 적용하는 엄격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사상에 입각한 엄격한 논리 체계를 이룬 비평은 모두 인정될 수 있다(박덕은 1988: 2). 다시 말해 특정한 비평 방법이나 모형이 절대적일 수 없으며, 작품의 특성이나 비평 목적에 따라 비평 방법이나 모형은 달라진다.

문학번역 비평이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보다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 체계적인 근거와 이론이 필요하다. 또한 문학번역에서 중요시하는 문학성을 기준으로 비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론으로 인지시학(cognitive poetics)이 있다. 인지문체론이라고도 불리는 인지시학의 초점은 문체를 통해 문학의 본질 즉 문학성을 연구하기 때문에, 문학번역 비평에 통찰력을 줄 수 있다. 인지시학에서 ‘시학’은 문학성을 의미하는데, 언어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학성을 연구한다. 따라서 원본과 번역본에 적용하여 의미의 차이를 해석하고 문학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인지시학은 인지언어학, 문학비평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인지언어학에서 모형과 분석틀을 끌어내므로 텍스트의 분석적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학번역 비평에 활용할 수 있는 인지시학의 다

양한 모형을 탐구하고 이 모형을 시 번역 실제 비평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번역 비평과 관련된 선행 연구와 인지시학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각각 살펴본다. 3장에서는 문학번역 비평에 활용할 수 있는 인지시학 모형 중 전경화(foregrounding), 정신공간(mental space),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을 간략히 살펴본다. 4장에서는 이 기제를 기반으로 이상의 시 ‘꽃나무’와 ‘거울’을 각각의 영역본 두 종류와 대조 분석하며 비평을 시도한다. 이상의 시는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어 보다 면밀한 텍스트 분석과 해석이 필요한데, 인지시학 모형이 이러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이상의 시를 비평 대상으로 삼았다.

2. 선행 연구

2.1 번역 비평 선행 연구

기존의 연구에서는 번역 비평이라는 용어가 학자마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 예로 라이스(Reiss 1977)는 텍스트 종류에 상관없이 번역 비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반면, 베르만(Berman 1995)과 휴슨(Hewson 2011)은 문학 텍스트에 한정해서 사용한다.

번역 비평을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라이스(1977)이다. 라이스가 제시하는 비평 과정은 번역본 읽기, 원본 읽기, 번역본 분석이다. 번역본 분석 단계에서 텍스트 유형, 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번역은 원본의 모든 요소를 보존할 수 없으므로 텍스트 유형에서 중요시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라이스는 문학의 형식인 문체를 중심으로 표현적 텍스트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비평 모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뉴마크(Newmark 1981)는 번역 비평의 목적은 번역 수준을 증진시키고, 번역자에게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며, 번역에 대한 생각을 조명하고, 해석과 평가를 위해서라고 간략하게 언급한다. 뉴마크(1988)의 번역 비평 과정은 원본 분석, 번역본 분석, 번역본과 원본 비교, 번역평가, 순수 문학인 경우 목표 문화에서의 번역 작품의 잠재성 평가이다. 뉴마크는 원본과 번역본 또는 번역본 간의

차이를 밝혀야 하며, 이 차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베르만(1995)은 번역 비평의 방법을 여섯 단계로 제시하고 존 던(John Donne)의 시를 실제 비평한다. 비평 방법은 번역본 재독, 원본 재독, 번역가 정보 조사, 번역본 분석, 번역의 수용, 생산적 비평이다. 라이스처럼 번역본을 먼저 읽은 다음 원본을 읽는 단계는 같지만, 라이스와 달리 번역본을 분석하기 전 번역 주체에 대해 조사하는 단계가 있다. 이 단계에서 번역가 견해, 번역 프로젝트, 번역 지평(horizon)을 조사한다. 원본과 번역본 평가의 기반은 윤리학과 시성(poeticity)이며, 생산적 비평이란 재번역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비평이다. 베르만의 방법론은 번역 주체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지만, 번역 주체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평가 기반인 시학과 관련해서 구체적 모형이나 상세한 언급은 없다. 베르만의 번역 비평은 유한내(2015)와 이영훈(2015)에서도 고찰되는데, 오역 지적 중심의 번역평가보다는 긍정적인 번역 비평을 강조한다.

번역 비평을 보다 분석적으로 접근한 학자는 휴슨(2011)이다. 휴슨은 번역 비평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 방법론으로 *Madame Bovary*와 *Emma*를 실제 비평한다. 방법론은 텍스트 정보 수집, 분석틀 구축, 텍스트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미시적·중범위적 분석, 거시적 분석, 번역본 특성에 대한 가설 세우기, 이 가설이 발췌 부분 이외에도 맞는지 검토하기이다. 텍스트 정보 수집은 베르만의 번역 주체 조사와 유사하다. 문학번역에서 중요한 문체를 통해 비평한다는 점에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발췌한 일부 구절에 미시적 분석 도구가 수십 개나 동원되어 복잡하고 분석에 어려움이 따르는 반면, 중범위적 분석에서는 문체 효과를 목소리 효과와 해석적 효과에만 제한한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번역 비평이 보다 활발하게 논의된 계기는 영미고전문학 번역평가사업 이후이다. 전성기(2006, 2007)는 번역 비평이 오역 비평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좋은 번역과 관련한 담론의 장과 더불어 번역 인문학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번역 해석과 번역 문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혜용(2009)은 평가 대상이 문학 텍스트일지라도, 정량적 평가 방식일 경우 번역 평가로, 정성적 평가 방식일 경우 번역 비평이라고 지칭한다. 문학 텍스트의 문학성을 객관화할 틀은 없으므로, 기존의 문학번역평가에서 문학번역 비평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언급한다. 류현주(2009)는 문학번역 비평의 경우 문학성을 중심

으로 시학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평가에서 비평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논의한다. 그에 관한 실례로 『오만과 편견』을 분석하면서 누락과 오역이 문학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번역 비평을 실제로 적용시킨 사례들(구태헌 2009, 김순미 2014, 유한내 2015 등)이 있다. 이인규(2015)는 번역 비평은 가치 판단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1차적 평가 단계에서 부실한 번역인지 판단하려면 신중하게 오역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2.2 인지시학 선행 연구

인지시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지언어학이 문학번역 실무와 이론에 유용하다고 제시한 학자는 타바코프스카(Tabakowska 1993)이다. 타바코프스카는 인지언어학 중 래내커(Langacker)의 인지문법이 심상(imagery)을 분석하는 틀로 유용하다고 언급한다. 심상의 주요 차원으로 관점, 척도(scale), 전경/배경, 은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 산문 번역과 시 번역(영어/폴란드어)의 사례 분석을 제시한다. 보아스 바이어(Boase-Beier 2006, 2011)는 번역에 인지문체적 접근방식을 취한다. 인지문체론과 인지시학은 상호 교차하여 사용하기는 하지만, 인지시학은 문학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반면 인지문체론은 문학 텍스트뿐 아니라 비문학 텍스트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아스 바이어는 인지시학이라는 용어 대신 인지문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보아스 바이어는 문학번역은 곧 문체번역이라고 지칭하며 문체는 항상 문학번역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문체는 저자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므로 비문학 텍스트에서도 무시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문학번역 텍스트뿐 아니라 비문학번역 텍스트를 인지문체적 접근방식으로 연구한다. 보아스 바이어의 연구 초점은 번역 비평의 관점이 아니라 독자이면서 동시에 작가인 번역가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문체를 잘 번역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인지시학/인지문체론 중에서 주로 전경화, 은유 등의 개념을 설명하고 각 개념에 대해 번역 텍스트(영어/독어)의 사례 연구를 소개한다. 한미애(2011, 2013)는 문학번역에서 인지시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소설 번역 텍스트(한국어/영어)를 분석하기는 하지만 인지시학 모형 중 주로 전경화를 분석틀로 삼고 있다. 정신공간과 인지문법은 활용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전경화뿐 아니라 정신공간과 인지문법도 활용된다.

3. 인지시학 이론과 모형

문학번역 비평을 위해 인지시학은 통찰력과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다. 문학 번역 비평은 문학성을 중심으로 비평이 이루어져야 하고, 인지시학은 문학 텍스트에 나타나는 문학성을 연구하기 때문이다. 인지시학 이론이나 모형은 언어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문학적 현상을 표상하므로, 원본과 번역본의 차이나 번역본 간의 차이를 밝히고 의미를 해석하며 번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분석틀로 삼을 수 있다.

인지시학은 작가가 어떻게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개념화하고 창출하는지, 독자가 어떻게 그 의미를 해석하는지를 인식, 범주화, 주의(attention) 등의 인지적 기제로 설명한다. 인지시학은 독자의 해석과 느낌이나 반응을 중요시하여 이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해석학이나 수용미학과 같지만, 해석학이나 수용미학과 달리 작가가 의미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구성하는지도 연구한다. 또한 해석학이나 수용미학에는 분석적 기제가 거의 없지만 인지시학에는 다양하다. 인지시학의 분석적 기제로는 전경과 배경, 스키마, 개념적 은유 및 환유, 정신공간, 개념적 혼성, 인지적 직시 및 직시이동, 인지문법, 텍스트 세계, 가능 세계와 담화 세계 등이 있다.¹⁾

인지시학에서 ‘시학’은 시뿐 아니라 소설 텍스트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학성이나 문학다움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반면, 비평은 개별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고 문학성을 평가한다. 따라서 인지시학의 모형을 비평 대상 텍스트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모형을 입증하는 사례 분석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인지 모형이 비평 대상 텍스트의 미학적, 문학적 특성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평 대상 텍스트의 문학적 특성에 따라 또는 비평 목적에 따라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 텍스트에 하나의 모형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특성에 맞는 여러 모형을 함께 적용하여 여러 측면을 비평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인지시학의 다양한 모형과 분석적 기제 중 이상의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전

1) 이 모형들은 여러 학자들이 각기 제기하였는데, 스톡웰(Stockwell 2002)이 *Cognitive Poetics: an Introduction*에서 인지시학이라는 이름으로 총괄하여 소개하고 있다.

경화, 정신공간, 인지문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전경화

전경화(前景化, foregrounding)는 문학 텍스트에서 어느 부분이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배경화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전경화는 대체로 언어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deviation, deviance)을 통해 일어난다. 일탈 장치에는 반복법이나 대구법, 특이한 문장 배열, 창의적인 표현이나 독창적인 은유 등이 있다. 이러한 유표적인(marked) 방식으로 인해 독자는 그 표현을 낯설고 새롭게 여기게 되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즉, 언어 규범에서 벗어난 특이한 표현 등을 사용하게 되면 그 표현은 다른 부분보다 두드러져 독자의 시선을 끌게 되는 것이다.

전경화라는 용어는 문학비평에서 1930년대부터 사용되었지만 전경화 이론을 인지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반 피르(van Peer 1986)이다. 반 피르의 전경화 개념은 저자-문학 텍스트-독자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언어 규범에서 벗어난 언어적, 구조적 일탈을 통해 저자는 독자가 특정한 해석을 구성하도록 안내하며 독자는 재구성한다(van Peer 1986: 21-22). 일탈을 통한 전경화의 인지적 효과는 독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 뿐만 아니라, 독자가 텍스트를 좀 더 천천히 읽도록 이끌며, 텍스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늘이고, 미학적 평가를 강화한다(van Peer & Hakemulder 2006: 547). 즉, 작가는 문학적 표현을 위해 또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텍스트에 특이하고 독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독자는 그 창의적인 표현에 주의와 흥미를 기울여 읽게 되고 문학성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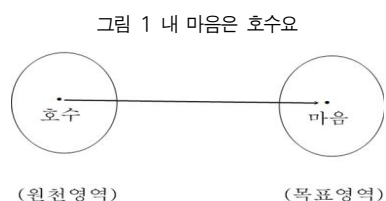
일탈의 형태는 시인들이 창의성을 위해, 낯설게하기 효과를 위해 사용하므로 특히 시에서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전경화는 시 번역 실제 비평에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일탈의 형태가 번역본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의미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목표 독자에게 어떠한 인지적 효과를 미치는지를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3.2 정신공간

정신공간(精神空間, mental space)은 포코니에(Fauconnier)가 언어의 의미를 인지적으로 제시한 이론이다. 포코니에와 터너(Fauconnier & Turner 2002: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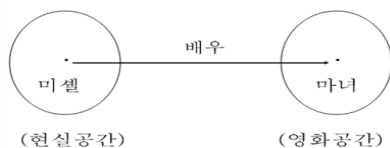
에 따르면, 정신공간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구성되는 작은 개념적 꾸러미이다. 정신공간들은 기억이 작동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생각과 담화가 전개됨에 따라 역동적으로 수정되며, 생각과 언어의 연결을 모형화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즉, 우리는 정신공간들을 서로 연결하여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고 상상적 상황을 나타낸다.

정신공간은 은유 과정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유 ‘내 마음은 호수요’에서 호수는 원천 영역(source domain)이고 마음은 목표영역(target domain)이다. 원천 영역(원천 공간)과 목표 영역(목표 공간)은 각각의 정신공간이다. 원천 공간과 목표 공간을 서로 연결하여 추상적인 개념인 ‘마음’을 구체적인 ‘호수’로 표현한 것이다(그림 1).



정신공간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되기도 한다. 사이드에 따르면, 어떤 문장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두 정신공간을 연결하는 방법 때문이다. 예를 들면 ‘In the film, Michelle is a witch’(영화에서 미셸은 마녀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2)처럼 미셸이 현실 공간에 있고 마녀는 영화 공간에 있는 경우라면, 미셸은 영화에서 마녀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가 된다(Saeed 2007: 382).

그림 2 In the film, Michelle is a witch 첫 번째 해석



(Saeed 2007: 382를 토대로)

두 번째 해석은 (그림 3)처럼 미셸이 현실 공간이 아닌 영화 공간에 있는 경우이다. 즉, 영화에서 미셸이라는 등장인물은 마녀라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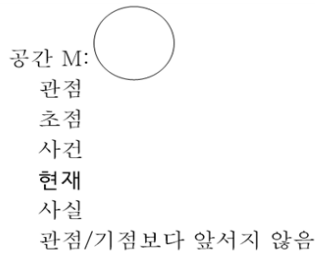
그림 3 In the film, Michelle is a witch 두 번째 해석



(Saeed 2007: 382를 토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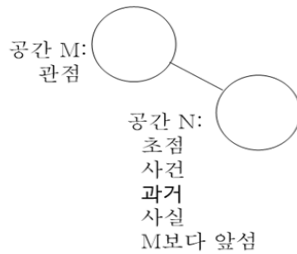
정신공간을 활용하여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는 관점, 초점, 사건이 모두 일치한다. 반면 과거 시제를 쓸 경우에 (그림 5)처럼 관점은 현재이지만 초점과 사건은 과거에 있다.

그림 4 현재 시제



(Boogaat & Janssen 2007: 807)

그림 5 과거 시제



(Boogaat & Janssen 2007: 808)

현재 공간과 과거 공간을 활용하면 ‘In 1966, my wife was a model’에서 ‘my wife’가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아내는 1966년 모델 일을 하고 있을 당시 결혼한 상태였다는 것이다(그림 6). 두 번째 의미는, 현재 공간의 아내는 1966년에 그의 아내가 아니었지만, 정신 공간을 연결하는 이동에 의해 내 아내로 불리는 것이다(그림 7). 즉, 현재 공간의 아내라는 호칭이 1966년의 상황에 투사된 것이다(Hamawand 2016: 96).

그림 6 my wife의 첫 번째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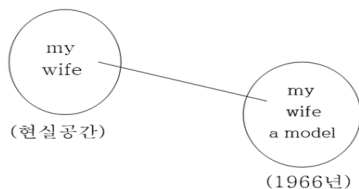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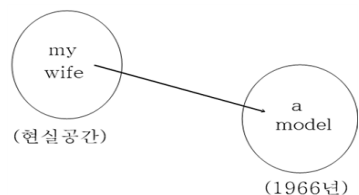


그림 7 my wife의 두 번째 해석



본 논문에서는 정신공간이 두 개 있는 경우만 살펴보았지만 개념화에 따라 여러 공간이 다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정신공간이 발전된 형태가 개념적 혼성(conceptual blending) 또는 개념적 통합(conceptual integration)이다. 보아스 바이어(Boase-Beier 2011: 67)는 입력 공간과 출력 공간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번역 텍스트를 개념적 혼성물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정신공간을 활용하여 은유적 표현과 독특한 표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기에 정신공간은 문학번역 비평의 유용한 모형이 될 수 있다. 특히 시에서는 창의적인 표현이나 은유가 많이 나타나므로 시 번역을 비평할 때에 정신공간을 활용하여 원문과 번역본, 번역본과 번역본 간의 의미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3.3 인지문법

인지문법(認知文法, cognitive grammar)은 래네커(1987)가 언어를 인지적으로 연구한 이론이다. 래네커는 문법적 요소들(품사, 구조 등)도 어휘처럼 의미가 있으므로 문법과 의미론은 구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의미는 개념화와 동일시”(Langacker 2007: 431) 되고 의미 구조와 개념화 구조는 동일시된다.

인지문법은 다른 문법 이론과 달리, 의미를 나타낼 때 해석(construal) 요인이 근본적이라고 간주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보고 상황을 개념화하여 해석하게 된다. 여기서 해석이란 어느 한 상황을 여러 방식으로 생각하고 묘사할 수 있는 우리의 다면적 능력이다(Langacker 2007: 435). 해석은 상세성(specificity), 초점화(focusing), 현저성(prominence), 시각(perspective)에 따라 달라진다.²⁾ 즉, 어떤 장면을 볼 때 얼마나 자세하게 보는지(상세성),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초점화), 어느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지(현저성), 어느 관점에서 보는지(시각)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표현의 의미는 개념적 내용뿐 아니라 그 개념적 내용이 어떻게 해석(구성) 되는지도 중요하다(Langacker 2008: 55).

이 네 가지의 해석 항목 중 실제 비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화자는 어느 한 상황을 보고, 자기의 관점을 적용시켜 개념화하게 되는데 인지문법에서는 이를 ‘시각’이라 한다. 래네커(2008)에 따르면, 시각은 크게 시각 배열(viewing arrangement)과 시간적 차원(temporal dimension)으로 나뉜다. 시각 배열은 관찰자와 관찰되는 상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시간적 차원은 순차적으로 개념화가 일어난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시각 배열의 유형에는 자기중심적 시각 배열과 최적 시각 배열이 있다. 자기중심적 시각 배열은 어떠한 장면을 해석할 때 화자가 자신을 포함시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최적 시각 배열은 화자 자신을 배제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화난 엄마가 아이를 혼낼 때 (a) Don't lie to me 또는 (b) Don't lie to your mother라고 말한다. (a)의 화자는 자신이 기술하는 장면에 자신을 포함했다. 장면은 내부 관찰 지점으로부터 해석되며, 주의의

2) 래네커는 해석을 선택, 시각, 추상으로 분류하기도 하고(Langacker 1987) 상세성, 현저성, 시각, 역동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Langacker 2007).

초점은 화자 자신에게 있다. 이 표현은 주관성이 드러나며 주관적 시각을 띠게 된다. (b)의 화자는 자신을 배제하고 있다. 화자는 기술하고 있는 상황과 자신과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표현한다. 외부 관찰 지점에서 해석되고 초점은 외부 실재물에 있는 객관적 시각을 띠게 된다(Hamawand 2016: 177-178).

시간적 차원의 한 유형에는 어떤 상황이나 장면을 제시하는 순서(order of presentation)가 있다. 제시 순서는 개념적으로 의미적으로 중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의 두 문장은 의미적으로 차이가 난다. (a) A dead rat lay in the middle of the kitchen floor. (b) In the middle of the kitchen floor lay a dead rat. (a)와 (b)의 문장 요소는 같지만 의미는 다르다. 즉, 객관적 상황은 같지만 정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b)의 경우, 화자는 우선 이미 접근할 수 있는 위치 In the middle of the kitchen에 관심을 가진 다음 새로운 참여자 a dead rat를 제시한다. 전치사가 먼저 오고 주어 뒤에 오는 이 비전형적인 순서는 담화에서 구정보가 앞에 오고 신정보가 뒤에 오는 것에 상응한다. 담화의 정보 구조는 본질상 개념적이다(Langacker 2008: 80-81). 우리의 인지 체계에서는 구정보를 먼저 인지하게 되고 신정보를 나중에 인지하므로 제시 순서는 관점과 관련이 있는 시각에 포함된다.

이러한 문장의 제시 순서는 단편 소설이나 수필에 비해 문장이 많지 않은 시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띠 수 있다. 문장의 어순을 어떻게 배치하여 번역하느냐에 따라 시의 의미는 달라진다. 또한 관점을 객관적으로 번역하느냐 주관적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시의 느낌이 달라진다. 따라서 시각은 문학번역 비평에서 텍스트 간에 의미 차이를 해석하는 데에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다.

4. 실제 비평

3장에서 살펴본 전경화, 정신공간, 인지문법을 기반으로 이상의 시 ‘꽃나무’와 ‘거울’을 각각의 영역 시 두 종류와 대조 분석하며 실제 비평한다.

‘꽃나무’와 ‘거울’의 첫 번째 목표 텍스트(TT1)는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Korean Poetry*(2004)에 실린 영역본이고 두 번째 목표 텍스트(TT2)는 대조를 위해 다른 출처에서 발췌하였다. 원본과 번역본의 대조 분석뿐 아니라

동일한 원본의 “번역본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번역본들을 대조 분석하는 것은 항상 결실이 있다”(Berman 1995: 67). 왜냐하면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고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 놓아 “독자들에게 다른 등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Reiss 1977: 5)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Korean Poetry*를 선택한 이유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출판하여 목표독자에게 수용되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실린 시는 베르만이 강조한 번역 주체와 관련하여 세부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텍스트로만 비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텍스트로만 비평하려면 보다 다양한 문학적 분석 도구가 필요하므로 인지시학 모형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꽃나무’와 ‘거울’에는 이상의 문학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즉, “사회와의 통로를 차단당한 인간의 파산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 정신”(김윤식, 김현 2011: 312)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특성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인지시학 모형을 기반으로 살펴볼 것이다.

4.1 ‘꽃나무’와 ‘Flowering Tree’ / ‘A Flower Tree’

‘꽃나무’는 이상의 시 중 처음으로 국문으로 쓰인 작품이며, 이상(李箱)이라는 필명으로 <<가톨릭청년>>(1933. 7)에 실렸다(권영민 2009: 26). 이상은 꽃나무 이전에는 일본어로 시를 쓰다가 ‘꽃나무’를 기점으로 국문으로 시를 쓰게 된다. TT1 ‘Flowering Tree’는 한국계 미국 시인이자 학자인 류(Walter K. Lew)가 번역하였으며,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Korean Poetry*(2004)에 실렸다. TT2 ‘A Flower-Tree’는 시인이자 학자인 김(Jaihiun J. Kim)이 번역하였으며, *Modern Korean Poetry*(1994)에 실렸다.

‘꽃나무’의 전문과 영역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ST) 별판한복판에 꽃나무하나있소 근처에는 꽃나무가하나도없소 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를 열심히생각하는것처럼 열심히꽃을피워가고있소. 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에게갈수없소 나는막달아났소 한꽃나무를위하여 그러는것처럼 나는참그런이상스러운홍내를 내었소.

(TT1) Dead center of an open field there is a flowering tree In the

neighborhood not even one That flowering tree with as much ardor as it thought about its thought-about tree opened ardently its blossoms and stood. It cannot go to the tree it thinks about Wildly I fled For the sake of one flowering tree I really went that far to make such uncommon mimicry.

(TT2) In the midst of wilderness stands a flower tree, no other tree near it. It blossoms in passion as much as it yearns for its companion somewhere. Yet it cannot near its fellow tree it is so much in love with. I run away toward another tree as if I were the very flower tree.

4.1.1 전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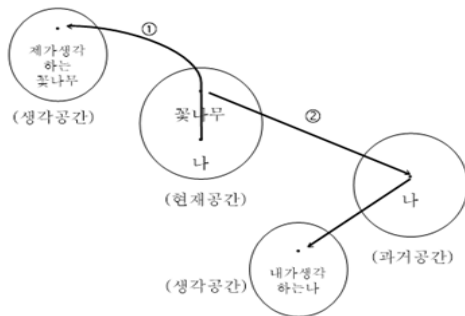
ST를 읽을 때 제일 먼저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부분, 즉 전경화 되는 부분은 언어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이다. 첫 번째 일탈은 한국어의 기본적 규범인 띄어쓰기와 마침표가 무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마침표는 ‘섰소’와 ‘내었소’ 다음에만 찍혀있다. 두 번째 일탈은 시의 일반적인 형태와 달리 행이나 연 구분을 하지 않고 산문처럼 쓰였다는 점이다.

품사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는 한국어와 달리 영어의 경우는 단어마다 띄어쓰기를 하므로 단어를 모두 붙인다면 시를 읽기가 아주 힘들 것이다. 이는 언어적 차이로 인해 번역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마침표와 관련하여 TT1은 ‘stood’와 ‘mimicry’ 다음에만 찍고 다른 부분에서는 생략하였다. 마침표가 없어도 문장을 대문자로 시작하였으므로 시를 이해하는 데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다. 산문적 형식도 그대로 유지하여 전경화 효과를 드러내었다. 반면, TT2는 ST에서 생략된 마침표를 모든 문장에 찍어 일탈된 문장 대신 규범적 문장이 되었다. 다만 ST의 산문적 형태만 유지하였다. 따라서 TT2보다는 TT1이 마침표를 생략함으로써 ST의 시각적인 일탈을 살려주어 전경화 효과가 잘 나타났다. TT2는 마침표가 있어 시를 읽기에는 수월하지만 문학적인 흥미는 다소 줄어들었다고 평가된다.

4.1.2 정신공간

‘꽃나무’는 정신공간을 활용하여 의미를 해석해볼 수 있다(그림 8). 우선 ST에서 시적 화자는 현재 공간에서 꽃나무를 바라본다. 꽃나무 주변에 꽃나무가 하나도 없고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를 열심히 피워가지고 서 있다. 화자는 꽃나무를 보며 생각 공간을 펼친다(①). 즉, 현재의 생각 공간에서 꽃나무는 자기가 생각하는 꽃나무에게 갈 수 없다고 화자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묘사된 부분 ‘별판한복판에 ... 갈수없소’에서 화자의 관점이나 초점은 현재에 있다. 그러다가 ‘나는막달아났소’에서부터 초점은 과거로 바뀌며 동시에 시의 대상이 ‘나’로 바뀐다(②).

그림 8 〈ST〉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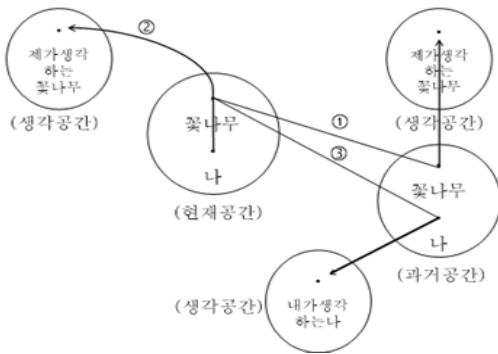


즉, 현재 공간에 있는 ‘나’는 꽃나무를 바라보다가 과거 공간에 있는 ‘나’와 연결이 되고, 과거의 생각 공간에서 막 달아났던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여기에서 “‘달아나다’를 ‘도망치다’로 보기보다는 ‘달려 나가다’로 이해할 수 있다”(권영민 2009: 26). 과거 공간에서 ‘달려나간’ 사건은 꽃나무처럼 나도 이상적인 내 모습에 가려 했지만 갈 수 없었고 결국 이상한 흉내에 그쳤다.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화자인 나는 과거에 자기가 꿈꾸던 이상적 모습에 다가가지 못한 좌절을 꽃나무에 비유한 시라 할 수 있겠다.

TT1의 경우는 ST처럼 시적 화자가 현재 공간에서 꽃나무를 바라보는 것에 서(there is a flowering tree) 시작한다(그림9). 하지만 이 꽃나무는 ST와 달리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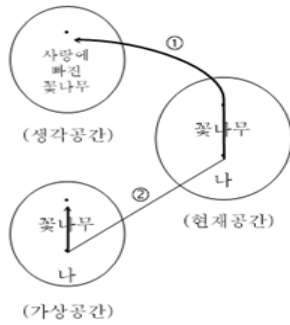
가 생각하는 꽃나무를 현재에 열심히 꽃피우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opened’와 ‘stood’가 과거 시제이므로 꽃나무가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를 과거의 생각 공간에서 꽃피웠기 때문이다(①). ‘opened’와 ‘stood’에서 화자의 초점이 과거에 있다가 다시 ‘It cannot go’에서 초점이 현재 공간으로 바뀐다. 현재의 생각 공간에서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에 갈 수 없다(②). 현재에 있던 초점은 ‘I fled’에서 다시 과거 공간에 있는 나로 바뀐다(③). ‘빨리 달려나간(fled)’ 사건은 꽃나무처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갈 수 없었고 결국 이상한 흉내에 그치고 말았다(I really went that far to make such uncommon mimicry).

그림 9 <TT1>의 해석



TT2의 경우도 ST처럼 화자가 꽃나무의 현재 상태(stands a flower tree)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그림 10). 이 꽃나무는 TT1과 달리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를 현재 공간에서 열심히 꽃피우고 있다(blossoms). 하지만 TT2의 꽃나무는 ST와 TT1의 꽃나무처럼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에게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in love with) 꽃나무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①). 또한 ‘나’는 가상공간에서 마치 내가 꽃나무인 것처럼(as if I were a flower tree) 사랑에 빠진 꽃나무를 향해 달려간다(②).

그림 10 <TT2>의 해석



(그림 8)과 (그림 9)를 비교해보면 (그림 8)의 정신공간 간의 연결은 일관된 반면 (그림 9)의 공간 간의 연결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는 ST의 시 전개가 일관되어 시의 의미적 흐름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는 반면, TT1의 시는 의미적 흐름을 잡기가 비교적 쉽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섰소’를 과거 시제 ‘stood’로 번역한 데서 기인한다. ‘섰다’는 ‘서있다’의 줄임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 8)과 (그림 10)을 비교해보면 (그림 10)은 단순한 양상을 띤다. (그림 10)에는 현재 공간만 존재하고 과거 공간은 없기 때문이다. TT2의 관점과 초점이 모두 현재 공간에만 있으므로 의미를 이해하기는 수월하지만 ST와는 해석이 아주 달라진다. 따라서 정신공간을 기준으로 TT1과 TT2의 의미 면을 해석해보았을 때 TT1은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ST에 가까운 영역본이라 평가된다.

전경화와 정신공간을 토대로 TT1과 TT2를 비평해본 결과, TT1은 이상의 문학적 특성 즉, 기존의 언어 규범을 깨 실험 정신과 현실의 좌절에 대한 묘사를 보다 잘 표현한 영역본이라 할 수 있다.

4.2 ‘거울’과 ‘Mirror’

ST ‘거울’은 《카툴닉 청년》(1933. 10)에 실린 이상의 시이다. 거울이라는 소재는 이상의 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소재이다(권영민 2009: 34-35). TT1 ‘Mirror’는 류가 번역하였으며,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Korean Poetry*(2004)에 실렸다. TT2 ‘Mirror’는 오록(Kevin O'Rourke)이 번역하였으며,

Looking for the Cow(1999)에 실렸다.

‘거울’은 모두 6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번역의 양상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전반부 3연과 영역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ST)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यो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यो
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यो

(TT1) In the mirror there is no sound
There is probably no world so quiet

In the mirror also are my ears
Two pathetic ears are there unable to hear my words

In the mirror I'm left-handed
Lefty that can't take my handshake—who doesn't know how to shake
hands

(TT2)
There is no sound in the mirror:
no world is so quiet.

I have ears in the mirror:
two misfortunate ears—they don't understand what I say.

Mirror-me is left-handed,
ignorant of handshakes, mine or others.

4.2.1 전경화

ST에는 세 종류의 일탈 현상이 전경화 된다. 첫 번째는 한국어 표기법에 어긋나게 띄어쓰기를 무시했고 마침표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한 연이 끝날 때마다 ◇ 도형을 넣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반복법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3.1에서 살펴보았듯이 의미를 강조하거나 운율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반복법도 규범적인 언어 사용에서 벗어나는 일탈된 장치이다.

우선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TT1과 TT2는 ST와 달리 일탈된 형태가 아니다. 영어는 특성상 한국어처럼 띄어쓰기가 없기에 ST의 붙여쓰기라는 부분은 전경화 할 수 없다. 하지만 구두점과 관련해서 TT1은 쉼표조차 없는데 반해 TT2는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규범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TT1의 2연에서 *there*는 TT2의 세미콜론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ears’가 거울 속의 귀라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TT2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였지만 TT1은 ST에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는 특징을 염두에 놓고 콜론 대신 *there*를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일탈 장치인 도형과 관련해서 TT1과 TT2는 모두 ◇ 도형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 도형은 현대시에서 잘 볼 수 없는 독특한 시적 장치이다. 도형 이외에도 이상의 시에서는 다양한 기호와 숫자가 나오는 것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도형은 기호들의 체계적 배열로서, 이 기호는 지시물과 반드시 닮을 필요는 없지만, 기호들의 상호 관계는 지시물들 간의 관계를 반영한다” (Langendonck 2007: 397). 따라서 ◇ 도형은 거울을 이미지화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T1과 TT2는 ◇ 도형의 이미지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ST보다 시각적 흥미가 적다고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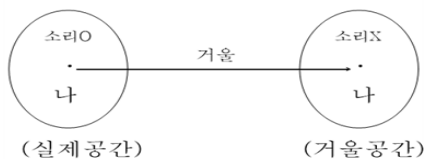
세 번째 일탈 현상인 반복법은 3연의 ‘왼손잡이오’에서 나타난다. 실제의 나와 거울 속의 나는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의 나가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지만 거울속의 나는 왼손을 내밀어 악수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TT1은 ‘left-handed’와 ‘Lefty’로 번역하여 반복법이라는 수사적 장치를 살려 미학적 의미를 강조했다. 반면 TT2는 ‘left-handed’로만 번역하여 의미가 강조되지 못했다. 따라서 TT1이 TT2보다 마침표 생략과 반복법이라는 일탈된 형태를 잘 드러내어 전경화 효과가 더 난다고 평가된다.

4.2.2 정신공간

전경화에서 살펴본 형태적 일탈은 시의 내용적인 일탈 즉, 시적 화자의 자의식 분열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측면은 정신공간을 활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거울이라는 존재를 통해 ‘실제의 나’가 ‘거울 속의 나’에 투사된다(그림 11). 하지만 실제의 나와 거울 속에 비친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운명이다. 실제 나라는 주체/정신과 거울의 나라는 주체/정신이 다른 것이다. 거울이라는 세상은 참으로 조용하지만 실제의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악수를 하려 해도 받지 못한다. 실제의 나와 거울 속의 나는 타협하지 못한다. 실제의 나는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데, 그 보이는 주체는 나 그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왜곡되어 보인다. 그 존재는 ‘나’라고 할 수 없고 다른 ‘나’가 되는 것이다.

실제 공간과 거울 공간에서 내 모습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모습도 대립된다. 실제 공간에는 소리가 있는 반면 거울 공간에는 소리가 없다. 즉,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은 투사되지만 소리는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에서 못알아듣다는 말은 이해하지 못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소리가 없으므로 말을 들을 수 없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 따라서 TT2의 ‘don’t understand what I say’보다는 TT1의 ‘unable to hear my words’의 의미가 맞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TT1은 TT2보다 시의 문맥적 의미를 일관되게 잘 파악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림 11 ‘거울’ 해석



4.2.3 인지문법

3.3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시 순서는 개념화의 순서와 같다.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에서 보면 시적 화자가 먼저 제시하는 것은 거울이다. 시적 화자는 거울

을 통해 실제 자신의 모습과 대칭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실제 자신의 분열된 정신 상태와 유사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화자의 단절되고 분열된 모습은 바로 거울을 매개로 표현된다.

TT1과 TT2의 번역 양상을 보면, ‘in the mirror’의 제시 순서는 반대이다. TT1에서는 일괄적으로 ‘in the mirror’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인식 순서가 ‘in the mirror’가 우선시 되도록 하였다. 반면, TT2는 1연과 2연에서는 문장 끝에 ‘in the mirror’를 배치하여 화자가 거울이라는 대상을 나중에 인식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TT2에서 ‘There is no sound in the mirror’와 ‘I have ears in the mirror’를 역번역하면 각각 ‘소리는 거울 속에 없소’, ‘내 귀는 거울 속에 있소’가 된다. 따라서 ST의 의미와는 다르다.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오’의 번역 양상도 TT1과 TT2가 다르다. TT1은 ‘Lefty that can’t take my handshake’로 번역하였다. TT2는 ‘ignorant of handshakes, mine or others’로 번역하였다.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의 관점은 자아에 있다. 자아의 외부가 아닌 자아의 내부에 집중되어 있다. 즉, 실제 나와 거울 속의 나에 관점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TT2의 ‘mine or others’(내 악수도 받을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악수도 받을 줄 모른다)는 관점의 측면에서 ST의 의미와 달라진다. 따라서 TT1은 TT2보다 주관적인 시각을 취해 자아 내면의 분열을 보다 잘 드러냈다고 평가된다.

TT1과 TT2를 전경화, 정신공간, 인지문법을 토대로 비평해본 결과, TT1이 보다 이상의 문학적 특성이 잘 나타난 영역본이라 할 수 있다. 즉 언어 규범을 깨고 도형 등을 사용한 다양한 실험 정신이 잘 나타났으며, 자아의 분열적인 모습이 잘 표현되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문학번역 비평을 위한 인지시학의 모형으로 전경화, 정신공간, 인지문법의 시각을 제시하였다. 전경화는 언어 규범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표현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를 통해 독자는 흥미를 갖고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정신공간은 개념 구조 즉 의미 구조의 한 형태이며, 어떠한

표현의 의미가 어떠한 방식으로 창출되는지를 인지적으로 설명한다. 시각은 어떠한 상황을 기술할 때 어느 관점으로 기술하는지와 관련이 있고, 제시 순서와 주관적·객관적 관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경화와 정신공간을 분석틀로 삼아 ‘꽃나무’의 영역본 ‘Flowering Tree’와 ‘A Flower-Tree’를 실제 비평 하였다. 전경화를 통해 시 번역의 형태적 측면이, 정신공간을 통해서도 전체 내용적인 측면이 이미지화되어 부각되었다. 또한 전경화, 정신공간, 시각을 분석틀로 삼아 ‘거울’의 두 영역본 ‘Mirror’를 실제 비평 하였다. 전경화를 통해 시 번역의 형태적 측면과 수사적 측면이, 정신공간을 통해 문장의 맥락적인 의미가, 시각을 통해서도 주관적 관점과 어순의 중요성 측면이 부각되었다. 즉, 전경화를 통해 이상의 다양한 실험정신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으며, 정신공간과 시각을 통해서도 현실의 좌절과 자아분열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인지시학의 모형인 전경화, 정신공간, 시각은 원문과 번역본의 의미 차이뿐 아니라 번역본 간의 의미 차이를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문학번역 비평의 유용한 모형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모형들은 인지언어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해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으며, 문학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모형은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인지시학 모형은 시 번역뿐 아니라 소설 번역에도 폭 넓게 적용될 수는 있지만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비평 대상이 되는 문학 텍스트에 따라 다르다. 인지시학의 여러 모형 중에서 해당 텍스트에 적용될 수 있는 분석 기제를 텍스트의 문학적 미학적 특성에 따라 비평가가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텍스트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모형이 필요하므로 향후에는 다른 유형의 인지시학 모형을 연구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구태현 (2009) 「번역 비평의 한 실제: 에드거 앨런 포의 시 번역의 경우」, 『우리문학연구』 27: 157-178.
- 김광길, 심원섭 (1997) 『문학비평이란 무엇인가』, 서울: 국학자료원.

- 김순미 (2014) 「미적 효과 전달을 기준으로 한 문학번역 비평: 『폭풍의 언덕』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1): 51-83.
- 김영희 (2008) 「특집: 번역과 번역 비평의 과제; 문학번역 평가의 의미와 한계」, 『안과밖』 24: 33-63.
- 김윤식, 김현 (2011) 『한국문학사』, 서울: 민음사.
- 류현주 (2009) 「문학번역 비평: 『오만과 편견』」, 『통번역학연구』 13(1): 53-68.
- 박덕은 (1988) 『현대문학비평의 이론과 응용』, 서울: 새문사.
- 영미문화연구회 (2007) 『영미 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2』, 서울: 창비.
- 유한내 (2015) 『베르만의 번역 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위대한 개츠비』와 『로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훈 (2015) 「앙트완 베르만의 번역 비평 이론 연구」, 『통번역학연구』 19(3): 115-148.
- 이인규 (2015) 「번역 비평에서 오역지적의 문제」, 『번역학연구』 16(5): 89-112.
- 전성기 (2006) 「번역인문학과 번역 비평」, 『텍스트언어학』 21: 359-387.
- 전성기 (2007) 「번역 비평과 해석」, 『불어불문학연구』 72: 281-310.
- 정혜용 (2009) 「문학번역평가에서 문학번역 비평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67: 299-316.
- 한미애 (2011) 「문학번역에 대한 인지시학적 접근: 황순원의 「학」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4): 205-229.
- 한미애 (2013) 『인지시학적 관점의 문체번역 연구 - 황순원의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erman, Antoine (1995) *Pour Une Critique des Traductions: John Donne, Gallimard*; translated into English by Francoise Massardier-Kenney (ed.) (2009) *Toward a Translation Criticism: John Donne*, Kent: The Kent State.
- Boase-Beier, Jean (2006) *Stylistic Approaches to Translation*, Manchester: Kinderhook.
- Boase-Beier, Jean (2011) *A Critical Introduction to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Continuum.
- Boogaat, Ronny and Theo Janssen (2007) 'Tense and Aspect', in Dirk

- Geeraerts and Hubert Cuyckens (eds.) 803-828.
- Fauconnier, Gilles and Mark Turner (2002) *The Way We Think: Conceptual Blending and the Mind's Hidden Complexities*, New York: Basic Books.
- Geeraerts, Dirk and Hubert Cuyckens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Oxford & New York: Oxford U.
- Hamawand, Zeki (2016) *Semantics: A Cognitive Account of Linguistic Meaning*, Sheffield: Equinox.
- Hewson, Lance (2011) *An Approach to Translation Criticism*,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olms, James S. (2000)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Lawrence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 Langacker, Ronald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ume 1, Theoretical Prerequisites*, California: Stanford U.
- Langacker, Ronald W. (2007) 'Cognitive Grammar', in Dirk Geeraerts and Hubert Cuyckens (eds.) 421-462.
- Langacker, Ronald W. (2008)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 Langendonck, Willy Van (2007) 'Iconicity', in Dirk Geeraerts and Hubert Cuyckens (eds.) 394-418.
- Newmark, Peter (1981) *Approaches to Translation*, Oxford: Pergamon, 181-182.
- Newmark, Peter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rentice-Hall International, 184-192.
- Reiss, Katharina (1977)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Übersetzungskritik*, Munich: Max Hueber; translated into English by Erroll F. Rhodes (2000) *Translation Criticism: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Manchester & New York: St. Jerome & American Bible Society.
- Saeed, John I. (2007) *Semantics*, Malden: Wiley-Blackwell.
- Stockwell, Peter (2002) *Cognitive Poetics: an Introduc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Tabakowska, Elzbieta (1993) *Cognitive Linguistics and Poetics of Translation*,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 van Peer, Willie (1986) *Stylistics and Psychology: Investigations of Foregrounding*, London: Croom Helm.
- van Peer, Willie and J. Hakemulder (2006) 'Foregrounding', in Keith Brown (ed.)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4, Oxford: Elsevier, 546-550.

<비평 텍스트>

- 권영민 엮음 (2009) 『이상 전집 1 시』, 서울: 뿔.
- Kim, Jaihiun J. (1994) 'A flower-tree', in *Modern Korean Poetry*, California: Asian Humanities.
- O'Rourke, Kevin (2005) 'Mirror', in *Looking for the Cow: Modern Korean Poems*, Seoul: Universal.
- Walter K. Lew (2004) 'Flowering Tree' and 'Mirror', in David R McCann (ed.)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Korean Poetry*, New York: Columbia U.

[Abstract]

Literary Translation Criticism and Cognitive Poetic Models

Han, Miae

(Seoul_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models of cognitive poetics for literary translation criticism—foregrounding, mental spaces, and perspective of cognitive grammar—and tries criticizing the English translations of two poems by Yi Sang on the basis of these models. Foregrounding and mental spaces are based on interpreting and evaluating ‘Flowering Tree’ and ‘A Flower-Tree’; all the three models on criticizing two versions of ‘Mirror’. These criticisms show that foregrounding is a useful framework for highlighting the form of poem translation, mental spaces for making its contents or meanings more visible and perspective for making its viewpoint and order of presentation more prominent. Therefore, three frameworks are demonstrated to be valuable for more logical objective of literary translation criticism, since they provide critics with insight and frameworks which help them to interpret and evalu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exts.

▶ Key Words: literary translation criticism, poem translation, foregrounding, mental spaces, cognitive grammar

▶ 주제어: 문학번역 비평, 시 번역, 전경화, 정신공간, 인지문법

한미애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연구초빙교수

hanmarian@dongguk.edu

관심분야: 문학번역, 문학비평

논문투고일: 2018년 8월 4일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5일